코스피 ▼ -7.95 (2569.17) | 코스닥 ▲ +6.84 (863.78) | 원·달러 환율 ▼ -5.60 (1321.60) | 금리(국고채 3년) ▲ +0.021 (3.480)

2023년 6월2일 금요일 전남일보

양파 농가, 냉해 피해에 수입산까지 '이중고'

무안 농가 70% 이상 냉해 피해
상품성 떨어져 수확 포기 속출
이상기후 영향 생육 환경 악화
작년 대비 10배 수입 '고통 가중'

1일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파밭에 냉해 피해로 생육이 멈춘 양파들이 쓰러져 있다. 독자 제공

"풍작이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밭을 갈아엎어야 하질 않나, 또 이렇게 냉해가 오면 수확해봤자 의미가 없어 또 갈아엎어야 합니다. 인건비도 못 건진지 오랩니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의 양파 농가들이 올봄 발생한 냉해 피해로 시름하고 있다. 양파 중만생종의 성출하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확대 정책 기조와 생산량 저하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안군 해제면에서 1000평 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한모(62)씨는 한참 바빠야 할 시기이지만 속타는 마음에 양파 밭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양파 중만생종의 수확이 시작됐고 한씨 역시 당초 이번 주에는 수확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냉해로 인한 병충해까지 겹치며 올해는 수확해봤자 상품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4월에 양파가 한참 자라야 할 시기였는데 춥고 해도 잘 뜨지 않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면서 "한 알당 최소 200g은 넘겨야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100g도 자라지 못하고 병이 와버린 것이 태반이다. 조금이라도 더 자랄까 싶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1일 전남도와 전남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올해 1750ha가량의 무안 양파 재배 면적 중 현재까지 1200ha 이상에서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무안 전체 양파 농가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피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등을 마친 전남도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 무안에서만 앞서 파악한 1200ha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남, 고흥 등 전남지역 전체 양파 생산 농가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확기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치솟은 인건비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는 냉해 피해로 출하할 물량 자체가 사라져 버린 현실에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 몽탄면에서 소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임모(57)씨는 "우리 양파는 그나마 냉해 피해를 심하게 입지 않아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주변에 피해 입은 분들은 밭 갈아엎을 준비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 일 같지 않아 마음도 아프고, 인건비는 너무 많이 올라서 수확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증량하고 양파 추가 수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선양파 수입량(깐양파 포함)은 3만714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3554톤)의 10배에 달했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최근 5년새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서 양파는 물론이고 지역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도 이맘때는 뭘 해주고, 이맘때는 이만큼 자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후를 예측할 수 없어지면서 그런 과정들이 모두 엉망이 되고 대처가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에 대비해 작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물론 온도에 따른 생육도 문제이지만, 작물들 자체가 약해지면서 병충해가 많이 온다"며 "이번 양파 냉해 피해의 경우에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조금 등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항상 피해를 본 만큼 모두를 보전할 수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일반 분양

동구 신주타운 내 815세대 규모
초역세권 입지·파격적 계약조건

모아엘가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12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일반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동구 신주거타운에 위치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총 815세대, 전용면적 59·74·84㎡ 규모다.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 계약금 5% 및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등이 주어진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수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가 들어서는 동구 신주거타운은 2만5000여 세대가 계획돼 있고, 인프라도 이미 구축돼 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교대역(예정)이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 단지이며, 바로 앞 도보 2분 거리에 계림초, 광주고가 있어 동구 신주거타운 내에서도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다.

단지 바로 옆에는 푸른길이 있어 언제든 자연을 산책할 수 있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명산 무등산과 산수공원도 인근에 있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제2순환도로, 서방사거리, 광주역을 통해 시내·외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커튼월룩과 유리난간 창호를 적용했으며, 단지 중앙은 대형 공원화로 다양한 식재의 정원과 수변공간을 구성했다.

세대당 1.76대 주차공간과 60개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 총 33대의 급속 완속 충전 설비 등도 갖췄다.

이밖에 스크린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룸, 경로당은 물론 물놀이터와 바닥분수, 놀이터, 도서관 등 키즈 특화 시설 등 명품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환경운동가 타일러 라쉬, 목포서 플로깅 '눈길'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 방문 체험
바다 보호 '스몰액션 캠페인' 동참

지난달 31일 타일러 라쉬가 목포 고하도 해변에서 보해양조 임직원 및 시민들과 플로깅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이자 작가 타일러 라쉬가 '바다의 날'을 기념해 최근 목포에 오픈한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를 방문, 시민들과 플로깅을 하며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1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타일러 라쉬는 지난달 31일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에서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플로깅 교육을 받았다. 이어 바다에 버려진 유리가 파도에 깨지고 풍화돼 만들어진 '씨 글라스(Sea glass)'를 활용한 작품과 보해 포토존을 둘러보며 보해의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다.

타일러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플로깅 키트를 받아들고 보해 직원 및 시민들과 함께 목포 고하도 해변을 걸으며 직접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보해 스몰 액션(SMALL ACTION) 스토어'로 이동해 직접 주운 쓰레기가 굿즈, 예술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쓰기도 한 타일러 라쉬는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이 바다, 나아가 지구를 지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해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타일러는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소주 브랜드가 바다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보해양조 스몰 액션 캠페인으로 소중한 바다에 대한 관심과 해양환경 지키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이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광주 동명동 팝업스토어, 목포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 & 스몰 액션 스토어 등을 오픈하고, 스몰 액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와 스몰 액션 스토어는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변동성 큰 시장… 겸손하게 접근해야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거나 종목(주식시장)과 지역(부동산 시장)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투자도 늘고 있다. 주식 고객예탁금은 연초 45조 원에서 5월에는 51조원으로 10%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건수도 연초 대비 2배가량 늘어났다.

현재 자산시장의 이런 현상이 경제 연착륙의 신호라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된다.

하지만 몇몇 거시경제 지표는 시장의 훈풍과는 반대로 어두운 형국이다. 당장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2가지 지표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PCE)와 미국 고용율이 중단없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5월 들어서 오히려 상승 했다. 지난 4월 미국의 실업율은 54년만의 최저치를 기록(고용율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상가빌딩) 가격의 하락과 이로 인한 은행의 부실 위험, BB급 기업들의 신용위기도 지뢰로 잠복해 있다.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격언이 있다. 거시경제지표가 반드시 자산시장의 침몰을 예고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대로 잠시 봄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 확신 해서도 안된다. 항상 두려움을 갖고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되 용기가 아닌 겸손이 필요하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있어서 위험분산(헷지)이 가능하다. 좋은 종목에 투자함과 동시에 일정 비율을 증시 하락(인버스 ETF등)쪽에 투자해서 헷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헷지를 할 수 없다. 그런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큰 자금이 투자되지만 사고 나면 그만이다. 한 방향 투자만 가능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면 설령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투자를 하지 않는게 낫다. 시장을 지켜보다가 바닥을 치고 난 후 무릎에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지난 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구조개혁 없이 재정과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저성장을 극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 같지만 잠시 봄바람에 취해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곱씹어볼 발언이다.